

『나다』에 투영된 대비적요소와 대립적요소의 의미*

송 선 기
(조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1939년 내전 직후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스페인 소설분야는 20세기 초반에 유행했었던 전율주의 문학이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천착했던 참여문학 성격을 갖는 사회소설 등의 경향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¹⁾ 특히 내전을 전후한 문단은 명망 있는 작가들의 추방과 자의적 망명, 내전 후 새로운 체제의 탄생과 더불어 진행된 반체제적 이데올로기를 걸러내기 위한 검열로 출판사들과 지성계를 억압하여 침체의 늪에서 허덕였다. 프랑코의 집권과 더불어 시작된 문화·예술계에 가해진 물리적·정신적 탄압은 극에 달해 내전 종료 직후인 1940년대²⁾ 스페인 문학

* 본 논문은 2011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1) http://es.wikipedia.org/wiki/Literatura_esp%C3%B1ola_posterior_a_la_guerra_civil
- 2) 내전 직후의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후 스페인의 일상적 현실과의 만남을 소상하게 그리는 몇몇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의 출현은 분명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음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카밀로 호세 셀라(Camilo José Cela)의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La familia de Pascual Duarte* (1942)』, 곤살로 토렌테 바에스테르(Gonzalo Torrente Ballester)의 『하비에르 마리뇨*Javier Mariño*(1943)』, 카르멘 라포렛(Carmen Laforet)의 『나다 *Nada*(1945)』, 그리고 미겔 텔리베스(Miguel

계는 몇몇 작가들의 작품 생산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의 한가운데에서 발표된 자전적 특징³⁾을 드러내는 『나다Nada(1944)』는 카르멘 라포렛(Carmen Laforet)이라는 신진 여류작가에게 1945년 1월 나달 문학상(Premio Nadal)과 1948년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에 의해 파스텐랏 상(Premio Fastenrath)을 안겨주었다. 이 작품이 문단과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요인은 작가의 젊은 나이(23세)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담겨진 빈곤과 파괴로 얼룩진 당대의 묘사와 전후 영속되는 붕괴된 사회의 가장 충실한 반영으로⁴⁾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실존적 고뇌의 탐색에 있었다.

친근한 문체와 사인을 보는듯한 생생한 현장감으로 전후의 바르셀로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후 스페인의 실상의 한 단면을 인상주의 기법을 통해 완벽하게 천착하고 있는 이 작가의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대의 스페인 사회의 분위기와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작품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중인물들의 행위들을 통해 그러한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작중 등장인물들의 행위유형들의 분석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된 작품 속의 묘사들을 통해 첫째,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여성들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프랑코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은 어떤 것이었고 그 개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작가가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등장인물들의 행위들의 의미를 친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상호 대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내전 이전에는 프티부르주아 집단에 속하는 중산층이었으나

Delibes)의 초기 소설들이 이런 유형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작품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들을 종합해 볼 때 그녀의 경험을 살린 자전적 작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작가는 “비록 자신이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작품의 무대가 되는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생활한 적은 있지만 작가 자신의 자전적 소설은 아니라고 밝힌다. 하지만 작품의 줄거리나 주요 등장인물들의 행위유형들은 작가의 삶의 궤적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En la 「Introducción a la compilación titulada *Novelas*», Primera edición de 1957, Barcelona, Editorial Planeta).
- 4) Elisa Garrido González(Editora), *Historia de las mujeres en España*, p. 538.

내전 이후 새로운 사회질서와 계급질서의 재편 속에서 그 중산계층이 어떻게 몰락하였고 그 몰락한 중산계층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주인공 안드레아의 외가택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며, 또한 내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르주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등장인물 폰스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상반된 계층의 상호대비를 통해 이 작품이 당대 스페인 사회 현실의 반영차원을 넘어 새로운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셋째, 스페인 내전의 주요 동기가 되었던 공화파와 국민파와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들이 작품⁵⁾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밝혀 스페인 현대문학사에서 이 작품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가치도 평가하고자 한다.

II. 반프랑코주의적 여성인물: 친프랑코주의적 여성인물⁶⁾

1931년 들어선 스페인 제2공화국은 다양한 각도에서 민주화를 향한 진일보한 정책들과 헌법을 만들었으며 여성들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
- 5) 18세의 주인공 안드레아는 사촌언니인 이사벨과 한 시골마을에서 지내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안고 바르셀로나의 외할머니 댁에 도착한다. 아리바우가에 있는 그녀의 외가 집에는 노령으로 인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외할머니, 과거의 유명 같은 구시대적 가치관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참견하는 앙구스티아스 이모가 있다. 또한 스페인 내전에 참전 후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버린 음악가 삼촌 로만, 물질적 빈곤으로 고통 받는 화기인 삼촌 후안, 내전기간동안 만나 후안 삼촌과 결혼했지만, 로만 삼촌과 미묘한 삼각관계에 있는 글로리아 외숙모, 로만 삼촌을 짝사랑하는 가정부가 있다. 폭력과 증오, 가난, 배고픔, 불결함, 싸움으로 특징 지워지는 외가택은 언제나 살풍경이고 긴장감이 돈다. 안드레아는 학교에서 에나라는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무겁고 음울한 집안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활기를 찾게 되고 에나와의 교제를 통해 바깥 세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유부남과의 사랑에 실패하고 수도원으로 입소한 앙구스티아스 이모의 이야기, 안드레아의 일상을 중심으로 한 에나를 비롯한 대학의 동료들과의 생활, 안드레아의 로만삼촌과 미묘한 애정전선을 형성하는 친구 에나와의 갈등, 에나의 어머니와 로만삼촌의 옛 관계, 그리고 로만 삼촌의 자살로 로만을 짝사랑하던 가정부 안토니아가 떠나는 과정, 최종적으로 에나가 가족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고, 에나의 가족이 안드레아를 마드리드로 초청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내용을 끝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과 이혼할 수 있는 법적근거⁷⁾를 제시하고 의회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조치들을 취하였다.⁸⁾ 하지만 1939년 시작된 파시스트적 특성을 드러내는 프랑코의 등장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형편없이 하락시키는 단초가 된다. 프랑코 지배기간동안 도덕성의 중시와 가톨릭적 가치의 강요는 당시의 여성들에게 명백히 남성과는 정반대이고 매우 한정된 역할만을 부여하게 된다.⁹⁾ 특히 그의 통치기 초반에 여성들에게 부과된 최선의 가치는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도덕적이며 순종적이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새로운 세대를 이어줄 재생산이었다. 즉 당시 스페인에서의 여성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여성, 남성에게 예속적이고 의존적이면서 결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여성이 평가되는 시기로 회귀한다. 이렇게 공화국 기간 동안 여성들이 향유했던 자유는 단절되고 집이라는 공간에 여성들을 또 다시 가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¹⁰⁾ 이러한 여성들의

6) 독재 이데올로기는 가정이라는 범주에 중점을 둔 여성들을 찬양했고, 여성의 기능들은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중심으로 선화하는 것으로 한정 지워졌다. 이런 유형의 생활과 삶에서 멀어지는 여성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또는 요부이거나 매춘부의 영역 내에 위치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상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이나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논의는 지양하기로 한다.

7) Elisa Garrido González(Editora), *Historia de las mujeres en España*, p. 497.

8) 즉 여성의 복권과 여성의 사회적 독립을 보장하는 다양한 각도의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1936년 내전으로 인해, 1900년대 30년 동안 스페인에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지식인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문화적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 계기가 된다.

9) Cristina López Moreno, *España contemporánea*, pp. 245-246.

10) 이러한 여성에 대한 시대적 환경과 관점에 착안하여 크리스티나 루이스 게레로는 라포렛의『나다』에서 “당시 여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핑크빛 소설의 여성주인공들의 획일적인 자아실현의 상징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는 바람직한 여성의 모델과는 상이한, 공부하는 여성, 일하는 여성,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 혹은 자아를 실현하는 유형의 여성 등장인물 ‘안드레아’를 등장시켜 비전형적 여성인물을 창조했다”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페미니즘적 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Cristina Ruiz Guerrero, *Panorama de escritoras españolas*, pp. 143-144).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 안드레아만을 놓고 등장인물이 구시대 여성상의 인물이나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의 인물이나 보다는 그 외의 등장인물들인 에나, 글로리아 외숙모, 앙구스티아스 이모, 에나의 어머니 등의 여성등장인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그녀들의 행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성이미지와 구시대의 여성이미지를 파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해 자유결혼과 이혼을 가능케 했던 남녀관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던 공화국 헌법은 폐기되고 명백히 차별적인 1889년의 시민법(Código Civil) 재 제정된다. 여성에게 부여된 이렇게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작품의 주요 여성등장인물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그녀들을 친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과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으로 구분하여 상호 대비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 에나에게서 프랑코시대의 스페인에서 바람직한 여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인물의 특징들을 고찰할 수 있다. 그녀의 미모만큼이나 그녀의 주위에는 많은 남자아이들이 기웃거린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남자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남자들을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유도하지만 막상 그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멀리한다. 작품에서 그녀는 활기차고 지성적이며 미모를 갖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여성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등장인물 하이메와 여러 남성 동료들은 그녀를 따라 다니지만 결국 그녀는 그들을 멀리한다. 즉 남성 종속적이거나 순종적이 아닌, 프랑코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의 임무를 철저히 배제하는 인물인 것이다. 하이메와 그녀의 관계는 젊은 청춘의 여느 연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풋풋한 애정과 신선함이 느껴지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주도적 인물은 항상 에나이다. 다시 말해 남성에게 종속적이지 않으며, 특히 그녀는 공손하거나 다소곳한 여성이 아니며 가톨릭교회가 지향했던 바람직한 여성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게다가 그녀는 하이메와 충실히 교제하는 중에서도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남성을 향한 야릇한 불꽃이 타오른다. 즉 열정적으로 하이메를 사랑하지만 친구 안드레아의 나이든 삼촌인 천재예술가였던 로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난 그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
 거의 열정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있다고...하지만 또 다른 뭔가가 있던 말이야...호기심 말이야. 가슴을 가득채운 가라앉지 않는 사악한 불안감...로만이 널 사랑한 것 같았니? 말해봐. 널 사랑했냐고? 모르겠어.(265).¹¹⁾

작품 내용의 전후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해 본다면 에나의 로맨에 대한 감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다. 첫째는 지성과 감성을 갖춘 신시대의 여성이 상대남성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이지만 천재적인 예술가적 기질에 대한 지적 동경의 감정과 그에 대한 외경이다. 둘째는 자신의 어머니가 로맨에게서 받은 사랑의 상처에 대한 복수의 의미를 갖는다. 어느 날 에나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이 젊은 시절 한때 사랑했었던 로맨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모욕감과 상처의 아픔을 딸이 겪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도 없어서 딸의 친구인 안드레아에게 이들의 관계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나 사실 에나는 처음부터 어머니와 로맨 삼촌의 옛 관계를 알고 로맨에게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접근한 것이다. 어머니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고 어머니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머니의 옛 연인을 유혹하고 상대가 빠져들자 냉정하게 배신하는 과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어리지만 당찬 여성 이미지의 소유자이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그녀는 로맨에게 다가가지만 잠깐 동안의 음악을 통한 감정적 교류를 할 뿐 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로맨으로 하여금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여성을 느끼게 해놓고는 “비열하고 천박한 인간,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264)라고 비난하고 지체 없이 떠나 버린다.

그럴 때면 로맨삼촌이 슬그머니 내 옆에 와 앉는 거야. 하지만 달구어진 그의 육체를 느끼는 순간 내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증오가 치밀어 올랐어; 그 감정을 감추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 나는 웃으면서 방의 다른 쪽 끝으로 슬그머니 이동했지.(266).

그녀는 친구의 외삼촌이며 어머니의 옛 연인을 유혹하고 그를 유희나 놀이의 대상으로 강등시킨다. 이처럼 그녀는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나, 특히 로맨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성주도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남녀관

11) 이하 작품의 인용은 Carmen Laforet, *Nada*, Ediciones Destino, 1979. 로 하며 쪽수만 표시한다.

계에서 여성 주도적 행위는 프랑코 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의 행위와는 철저히 배치된다. 더 나아가 그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로만이 자살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또한 작품 전체를 통해 그녀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해결해가는 당찬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명성과 부를 겸비한 젊은 청년을 결혼을 전제로 소개시켜 주지만 그녀는 상대의 마음만 빼앗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체 돌아서 버린다. 그녀는 여성에 대한 구세대의 바람, 남성지배적인 보수적 성향의 남녀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전적으로 부정한 새로운 시대의 여성, 반프랑코주의적 여성관의 인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남자들을 “철없고 미련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로 폄하해 버리고 남자아이들과의 관계를 지루하고 따분한 놀이쯤으로 비하해 버린다.”(136). 이렇듯 그녀는 결혼에도 별 관심이 없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행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글로리아라는 등장인물의 특별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으로 보아 내전이 시작될 시점인 어느 날 그녀는 약혼자인 후안을 떠나 미래의 시동생인 로만과 타라고나에서 바르셀로나로 동반해 가게 된다. 그녀는 로만과 바르셀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숙소에 머물면서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이 교차하는 교차로가 된다. 전쟁이 끝나고 원래의 약혼자인 후안이 돌아왔어도 그녀는 시동생 로만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 이렇듯 작품 속에 묘사되는 그녀의 행동은 과격적이고 과감하여 프랑코 시대의 바람직한 여성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여성인물이다. 그녀는 남편 후안에게서는 특별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밤마다 시동생 로만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주위를 서성거린다. 어느 날 로만은 단순히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골적으로 형수를 침실로 끌어들이려 한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두 사람은 다투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모두 들춰낸다.

로만: “언성 높이지마...! 당신은 침묵해야할 많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 잠자코 있으라고... 당신이 내게 몸 바치러 내 방으로 왔던 그날 밤 어떡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짓 이겨서 쫓아 보냈는지를 목격한 증인들을

당신의 남편에게 들이댈 수 있다고. 당신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그걸 잊지 말라고! 그러니 청교도처럼 굴지 말라고. 내게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때 내가 좀 바보였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원하고 있다고.(206).

글로리아의 남편이며 로만의 형인 후안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지만 팔리지 않아 생활비를 벌지 못한다. 그로 인해 그의 아내 글로리아가 밤마다 그녀의 친정 언니 집에서 벌어지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집에 남은 가재도구들을 팔아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녀는 남편 후안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지만 간통의 대상이었던 시동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애정관과 여성정체성의 소유자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를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당대의 스페인 사회가 경험한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한 여성의 도덕적 타락을 대변하는 여성인물로 볼 수 있으며, 둘째는 순종적이고 가정 내에 머무는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면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의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등장인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앞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가 몸속에 미래의 남편이 될 후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생 로만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그녀가 가톨릭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프랑코를 위시한 당대의 지배세력들이 지향했었던 바람직한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게다가 그녀는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특별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코시대의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이라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기준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성 또는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등장인물의 행위유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반프랑코주의적 여성인물들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주인공 안드레아의 이모 앙구스티아스라는 여성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녀를 프랑코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대변하는 여성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특히 주인공 안드레아에게 집안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는 앙구스티아스이모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이제는 한 날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해 버린 자신의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인물이다. 외출 할 때면 귀족가문 여성의 상징적 장식품인 뺏뺏한 깃털을 꽂은 모자를 쓰고, 자신의 집안의 전통과 보수성을 강조하면서 안드레아를 감시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제한하려든다. 그녀는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로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현재를 망각한 인물로 구세대의 잔영이고 내전 후 스페인사회의 강압적 분위기와 당대의 집권세력이 지향했던 바람직한 여성상을 대변해 준다. 그녀는 젊은 조카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구시대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상의 여성이 되어 줄 것을 강요하며 그녀 스스로도 이를 실천한다. 비록 그녀가 유부남이었던 회사의 상사와 내연의 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함으로써 당대의 여성에 대한 가치체제의 기대치에서 일정부분 이탈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 당대의 여성이 명예롭게 사는 길 중 하나였던 수도원 행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모 말대로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자는 다 수녀원으로 가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여자에게 명예로운 두 가지 길... 그 가운데 나는 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자부심을 느낀다. 난 우리 가문의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을 한 거야. 나 같은 상황이었다면 너희 엄마 같았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 회생을 하나 넘겨서 알아주실 거야.(101).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공화국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교회의 권위와 위상이 상당부분 강등되었고, 이 권위상실에 분노를 표시하던 종교계는 국민파로 분류되는 프랑코의 쿠데타에 협력하고 이후 프랑코가 이끄는 우파가 승리한다. 승자 측에 협력한 대가로 스페인의 교회는 또 다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갖는 지배적 집단의 주춧돌로 변화된다. 힘을 얻은 교회는 바람직한 기독교도로서의 여성상, 즉 단정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1939년 프랑코 체제는 사회구조에 있어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파시스트 경향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독재질서의 유지를 위해 도덕적 질서와 복종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여성의 역

할을 위대한 조국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생산의 도구로 보았다.¹²⁾ 즉 가정 내의 여성, 순종적인 여성,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여성, 국가가 톨릭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따르는 여성을 강조하였다는 관점, 즉 최종적으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 수도원 행이었다는 사실에서 친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등장인물 에나의 어머니도 친프랑코주의적 여성의 전형적 인물이다. 에나의 어머니는 에나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젊고 유망한 음악가였던 주인공 글로리아의 외삼촌 로만을 사랑하게 된다. 열여섯이었던 그녀는 로만에게 빠져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로만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채를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징표로 잘라 주라고 요구한다. 로만을 너무도 사랑하던 그녀는 머리채를 잘라 그에게 선물하지만, 그는 그녀를 비굴한 개처럼 군다고 핀잔을 주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후 그녀는 사업가인 에나 아버지와 인습적으로 결혼하게 되면서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위상은 상실하고 만다. 옛 사랑 로만을 잊지 못하던 그녀는 어느 날 “몸이 아파 고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무의식중에 로만을 찾을 만큼 지나간 사랑에 대한 열병을 앓는다.”(266)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녀를 에나 아버지는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로 인도하고 첫째 딸 에나를 낳게 된다. 집안에 갇혀 아무런 삶의 의욕도 사랑도 느끼지 못하던 그녀는 커가는 에나를 보면서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딸을 통해 확인하려한다.

나는 에나에게 평온과 광명의 상징이었어요.(...)나는 그 애가 신격화해 온 나의 이 이미지가 열정의 진흙탕과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에나가 내게 쏟아주는 애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랍니다. 에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당신 같으면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릴 수 있었어요?(237).

12) Cristina Ruiz Guerrero, *op. cit.*, p. 142.

작품에서 병약한 모습에 못생기고 불품없는 여인으로 묘사된 그녀는 독재 정권의 바램대로 아이를 여섯이나 낳는다. 여위고 허약한 그녀는 이방에서 날아온 병든 새로 묘사되고 남편과 아이들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집안이라는 울타리에 감금된 당대의 스페인에서 요구되었던 여성의 역할과 바람직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전혀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남성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으로 프랑코주의 여성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여성들이 뭔가를 욕망할 권리도, 극복할 수도 없는 유일하게 모성성에 운명 지워진 순수한 객체들로 인식되어졌을 그 사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의 논리에 철저히 종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Ⅲ. 몰락한 프티부르주아: 신흥부르주아

이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소재들 중의 하나가 바로 몰락한 프티부르주아와 신흥부르주아의 대립적 양상에 대한 암묵적 서술이다. 몰락한 프티부르주아의 고통과 가난과 붕괴의 전형적 모습을 우리는 주인공 안드레아의 외할머니 덕의 풍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상반된 모습, 즉 신흥부르주아의 호화롭고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대학에서의 동료인 폰스라는 등장인물의 집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940년대 스페인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나 내전의 승자들과 패자들 사이의 사회적 차별과 계층적 차별이 심화된 시기였다.¹³⁾ 주인공 안드레아는 전쟁과 전혀 무관한 어린소녀였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은 부모의 부재로 사촌누이의 보호를 받으며 가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희망 없는 환경으로 패자들의 환경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 시골마을을 떠나 대학에 진학해 외할머니가족이 있는 마르셀로나라는 대도시로 향한 안드레아를 기다리고 있는 환경 또한 그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거

13) Elisa Garrido González(Editora), *op. cit.*, p. 533.

리가 멀다.

그녀는 내전 이전에는 프티부르주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중산층이었으나 전쟁 이후 몰락하여 가난에 찌들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침울하고 우울한 불협화음으로 넘치는 외가댁의 분위기와 마주한다. 그녀는 유년시절 몇 년 동안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그곳에서의 유년의 기억은 사랑과 단란함 속에서 삼촌들과 이모들과 지냈던 즐겁고 활기찬 것이었으나 이제 남은 건 초라한 집안의 풍경과 깨진 희망뿐이다. 주인공 안드레아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두 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폭력과 기아로 대변되는 그녀의 외가댁의 질식적인 환경과, 그녀의 일상의 고뇌를 반감시켜주는 동료애와 자유로움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대학생활이 그것이다. 작품에는 주인공 안드레아의 외가댁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험악한 분위기 외에도 이 가족이 몰락한 프티 부르주아라는 사실이 집안의 집기들을 통해 섬세하고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안드레아가 바르셀로나의 외가댁에 도착한 첫날밤에 목격하고 경험한 외가댁의 풍경이다.

그날 밤 어떻게 내가 잠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게 주어진 방에는 뚜껑이 떨어져나가 건반이 드러난 커다란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벽에는 여러 개의 산양의 뿔 장식품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값나가는 것들도 있었다- 중국식 책상하나와 그림들, 뒤범벅이 되어있는 가구들. 폐허가 되어버린 궁전의 다락방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집의 거실이었지만. 방 한가운데는 비통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장례식의 봉분 같은 -쿠션의 솜이 다 터져 나온 의자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어-(18).

집의 집기들, 가구, 피아노, 중국식 책상과 그림들에 대한 묘사와 폐허가 되어버린 궁전 같은 이 집의 분위기는 이 가정이 전에는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안락하고 부유했던 중산계층이었으나 이제는 쇠락하고 몰락한 빈민가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사실 안드레아는 자신만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가 없었더라면 대학이라는 울타리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모순일 만큼 가난하다. 너무나 배가고픈 그녀는 야채를 삶고 버린 물을 몰래

마시기도하다. 이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안드레아에게 있어 유일한 탈출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생활 속에서 맺은 친구들과의 우정과 어울림이다. 작품 속에서 특히 사업가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신흥부르주아의 딸인 에나와 우정을 쌓으며 그녀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고 그녀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그녀와 어느 정도의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에나와의 우정은 안드레아의 메마른 삶을 적셔주고 정신적 갈증을 풀어주는 단비 같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그것은 그녀에게 일순간의 동질감 혹은 착각일 뿐 하나가 될 수 없는, 계층 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일 뿐이다. 그녀와 어울리는 순간들에도 그녀 자신 스스로 괴리감을 느끼고 부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대학의 동료들과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렇듯 이 소설은 경제적으로 서로 계층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인물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어느 날 안드레아는 자신의 구질구질한 삶에서 한 순간이나마 벗어나 새로운 분위기를 맞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그녀와 감정의 교류가 있는 폰스라는 대학 동료의 집에서 벌어지는 댄스파티에 초대받는다. 폰스의 집에도착하지만 집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돈으로 치장된 장엄한 집안 분위기에 그녀는 기가 죽는다. 댄스파티 동안 내내 자신은 그곳에서 단지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만 또다시 뼈저리게 느낄 뿐이다. 파티에 어울리는 변변한 옷가지도 갖춰 입지 못하고 낡은 신발을 신은 그녀의 초라한 차림새를 부끄러워하는 듯한 폰스의 태도와 폰스 어머니의 눈길에 수치스러움과 그들에 대한 이질감만 느끼면서 쫓기 듯 그의 집으로부터 뛰쳐나온다. 신흥부르주아인 폰스의 집에 대해 안드레아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후 이렇게 회고 한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시원한 느낌의 입구가 생각난다. 또 출입문 앞에서 손님을 맞는 하인을 마주쳤을 때 나를 엄습했던 혼란스러움과 화초와 도자기로 장식된 현판도 떠오른다. 폰스어머니와 악수하려고 내 옆으로 온, 너무많은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냄새도 (...) 내 낡은 구두를 향하다가 다시 어머니의 시선과 교차하자 안절부절 못하는 폰스를 향하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폰스 어머니의 시선도 생각한다.(274).

전쟁으로 인하여 안드레아의 외가와 같은 이전의 중산층의 삶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상류층들은 오히려 전쟁덕분에 이익을 취하여 그들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여전히 파티를 즐기며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안드레아는 친구 에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무렵 폰스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친구들과 ‘아틀리에’에서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도 그 공간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그녀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있지만 항상 외톨이고 그들의 심경변화에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안드레아는 그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접하는 신흥부르주아 계급의 사람들이 전쟁을 이용해 얻은 돈에 대한 언급에 어안이 빙빙해진다. 아틀리에를 드나드는 하이메라는 등장인물은 전쟁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다. 내란 전 대학에 다녔던 그는 전쟁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했다. 전쟁이 끝났지만 그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승용차를 타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 어느 날 하이메는 부의 상징인 자가용으로 등장인물 안드레아를 데리고 아틀리에에 나타난다. 하지만 안드레아의 형편을 잘 알고 있으며, 하이메의 생활방식을 잘 알고 있던 동료가 그들을 싸잡아 비난한다.

하이메와 이투르디아가 서로 냉랭하게 인사를 교환하는 것 같았다. “이 아가씨가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신 것을 아나?¹⁴⁾ 우리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이투르디아가 말했다. (...) 건축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두 학기로 충분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허비했다.(190).

신흥부르주아의 자녀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발표하는 보헤미안적인 분위기의 이곳은 문학을 공부하고 항상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는 안드레아에게는 꿈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도 그녀가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14) 밑줄은 필자의 것임.

공간은 아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던 폰스가 사는 저 저택의 문을 절망적 감정으로 되돌아 나왔던 것처럼 결국 아틀리에에도 상류층 그들만의 아틀리에가 아니겠는가. 신흥부르주아 자제들의 한가한 놀이터에서 그녀도 함께 꿈을 꾸기도 하지만 결국 안드레아는 가난에 찌든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과 삶을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이방인일 뿐이다. 이렇듯 경제적 측면에서 계층이 다른 주인공 안드레아와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통해 단지 피상적인 어울림만 존재할 뿐 진정한 의미의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공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작품에는 서로간의 정서적 이질감과 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의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IV. 공화파: 국민파

이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소재들 중의 하나가 스페인 내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파와 국민파의 갈등양상에 대한 묘사다. 서로 다는 사회 계층 간의 대립, 가톨릭 대 반가톨릭의 대립, 시민들과 이웃들과 가족 간의 대립으로 살상과 피로 얼룩졌던 이 전쟁의 결과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소설 속에서 전쟁의 물리적 측면은 구체적으로 체현되지 않는다. 숨겨지듯 암시적으로 묘사되는 전쟁의 흔적은 희미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의 불길함을 머금고 소설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모든 종류의 악과, 살상과 고문과, 체포, 구금 그리고 감옥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추악한 만행의 장이었던 전쟁에 작가는 암시와 은유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¹⁵⁾

물리적인 파괴의 흔적들은 폐허라는 단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15)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내전의 현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 내전의 결과로 도덕적 물질적 결핍이 극도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내전 이후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과 검열은 당대의 작가들에게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포와 증오와 결핍으로 대변되는 내전은 집권세력의 비위에 어긋나는 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처럼 언저지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한 무더기의 낡은 집들이 가로 등불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117). 이 추악한 형제 살해의 비극의 출발점은 공화파와 국민파¹⁶⁾간의 대립이었다. 등장인물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전쟁의 양대 세력에 대한 언급은 등장인물 후안과 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날 형제는 형인 후안의 약혼자인 글로리아가 살고 있던 타라코나에 있게 된다. 글로리아는 어느 날 밤 당시의 두 형제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두 형제가 제각기 살길을 찾아 한 사람은 공화파로 활동하기로 하고, 또 한 사람은 국민파에서 활동하기로 하여 제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됨으로써 스페인 내전이 형제간의 사이도 갈라놓은 비극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던지시 예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도 하나를 펴놓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 로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야겠어. 하지만 형은 그쪽으로 가. 그건 아주 쉬워...차츰 로만 도련님이 우리 그이더러 국민주의자들 편으로 가라고 꼬드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 (...) 후안삼촌이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나 이제 결심했어. 이제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49).

작품의 흐름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다면 이 시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을 알 수 있다. 한때는 화목하고 유복했던 에텐동산에 비유되던 스페인의 한 가정의 형제가 각각 다른 전선의 한 편을 선택함으로써 스페인 내전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파괴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양대 세력 간의 불신과 밀고, 고문, 증오, 보복 등으로 얼룩진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화파에 섰던 동생 로만은 형수의 밀고에 의해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인 국민파에 의해 자행된 잔혹한 고문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내전의 양대 진영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16) Cristina López Moreno, *op. cit.*, 12.

할머니. - 감옥에 있었던 몇 달 동안에 그는 변했어. 그곳에서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도 없었어. 하지만 보다 더 불운했던 건 후안이었고, 그래서 나는 후안을 더 이해한다. 게다가 후안이 더 나를 필요로 하고. 글로리아. - 로만은 이미 그 전부터 변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관용차를 타고 이곳 바르셀로나로 들어서던 바로 그 순간에 말이예요. 안드레아야, 넌 로만 도련님이 빨갱이들과 붙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건 모르지? 임무라야 고작 첩자였지만 말이야.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먹는 천하고 추한 인간 말이야.(47).

주인공 안드레아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모 앙구스티아에게서 들은 외할머니네 가족의 중요한 두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후안 삼촌과 로만 삼촌의 전후의 삶의 모습과 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외할머니를 통해 듣고 있다. 즉 두 삼촌들이 내전에서의 참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 미치광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 가정부 안토니아, 외할머니도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주인공 안드레아의 외숙모 글로리아는 자신의 젊었을 때의 현 남편과의 사랑을 회고하면서 당시를 기억한다. 전쟁의 상처로 인해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미남이었고 국민과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 후안이 정말 미남이었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당시 후안의 임무가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꽤 중요한 건 분명해.”(48) 모든 이념전쟁과 관련된 문학작품이 그렇듯 스페인 내전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도 모든 것을 파괴당하고 상실하여 전반적으로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작품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삶도 모두 조금씩 비틀어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작품에서 거의 매일 아내인 글로리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후안의 태도는 한 개인의 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보일 수 있는 보편적 태도일 수 있으며 또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인물일 수 있다. 이렇듯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상처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트리우마를 남겼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안과 로만간에 오가는 혹은 글로리아와 앙구스티아스 사이에 오가는 언어적 폭력과 가난에 찌든 생활의 모습은 내전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타라고나에서 바르셀로나로 함께 동반해준, 한때 사랑하기도 한 시동생 로만을 글로리아가 빨갱이로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켰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념전쟁의 결과로 야기된 이 가족의 서글프고도 기막힌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신이 총살당하도록 당신을 고발(밀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나! 나였다고요...! 누구 때문에 당신이 감옥살이를 했는지도 궁금하지요? 앞으로도 언제든 당신을 고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나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라고요!(207).

이렇듯 가족 간의 관계도 비정상적이다. 특히 앞의 지문에서 언급하는 밀고는 이웃과 가족 간에도 빈번히 일러났던 실제 내전을 전후한 양대 세력 간의 싸움이 한창이던 당시의 스페인 사회에서 일상적인 것이었음은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사실 작품 내에서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이 형제간의 이념적 대립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노선을 선택하고 난 이후 형 후안과 동생 로만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전쟁 후 집에 돌아온 그들에게 서로 물어뜯고 할퀴고 중요하고 폭력적인 언어로 빈정거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린다. 특히 등장인물 글로리아를 놓고 형과 동생이 벌이는 미묘한 갈등과 싸움은 이 양 계파사이의 충돌이 두 사람의 형제들 간의 갈등을 넘어 스페인이라는 나라 전체의 갈등이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 다른 지문에서도 과거의 회상을 통해 공화파와 국민파 사이의 갈등의 과정을 암시적으로 그리고 있다. 공화파의 상징인 민병대원의 반가톨릭 정서를 집안 수색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할머니의 입을 통해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긴박했을 당시의 상황을 할머니는 아주 절묘하게 피하여 화를 면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언젠가 민병대원 한명이 가택 수색을 나왔는데, 그때 난 조용히 내 수호 성자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 청년이 ‘이런 엉터리 것들을 믿는다는 말 씀입니까?’ 하고 묻더구나. 난 ‘당연하지요. 댁은 아니세요?’하고 되물었어. ‘그럼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내버려두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사실 공화주의자로 치자면 내가 댁보다 훨씬 더 공화주의적인 사람ियो.(52).

이렇듯 내전의 양대 주체세력들의 갈등과정을 작품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겪은 후 물질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형제들은 살아남지만, 그 충격은 두 형제의 삶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동인으로 자리 잡는다. 그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여름 어느 날 동생 로만은 면도칼로 목을 베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로만과 매일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형 후안은 절망적인 통곡으로 슬퍼한다. 이 통곡의 의미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형제로서의 단순한 감정표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남긴다. 즉 결국 내전의 양대 주체였던 공화파와 국민파로 나뉘어 글로리아를 놓고 정신적 갈등을 겪던 형제 중 빨갱이로 활동한 로만이 자살함으로써 상대진영인 국민파가 승리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살한 동생도 정신적으로 황폐해져버린 살아남은 형도 전쟁의 승자는 아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자는 없고 서로가 패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V. 결어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다양한 관점의 상호 대비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의 여성등장 인물들의 행위 분석들을 통해 이 작품에 내전 이후 권력을 잡은 프랑코와 집권세력이 지향했던 바람직한 당대의 여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개념에 작가가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등장인물들을 친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과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으로 구분하여 상호 대비를 통해 살펴보았다. 등장인물 에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남성들을 지배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여성인물로 프랑코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장인물 글로리아에게서도 프랑코시대의 바람직한 여성과는 정반대의 여성이미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몸속에 미래의 남편이 될 후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생 로만과 내연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에서 가톨릭중심의 반프랑코주의적 코드의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는 등장인물의 행위유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앙구스티아스라는 여성인물에 주목하여 그녀를 프랑코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대변하는 여성 인물로 파악하였다. 특히 그녀가 당시 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이 걸을 수 있었던 두 길, 즉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어 자녀들을 생산하여 국가재건에 이바지하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가 조국의 이상을 실현할 가톨릭교도로서의 길 중 수도원 행을 택함으로써 프랑코가 선언한 가톨릭을 통한 하나의 스페인 건설이라는 모토를 충실히 따르는 친 프랑코적인 코드의 여성인물로 정의하였다. 또한 등장인물 에나의 어머니는 당대의 독재정권의 바람대로 결혼을 통해 아이를 여섯이나 낳고 남편과 아이들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집안이라는 울타리에 철저히 종속된 여인으로 프랑코주의 여성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0년대 스페인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나 내전의 승자들과 패배자들 사이의 사회적 차별과 계층적 차별이 심화된 시기였다. 몰락한 프티부르주아의 고통과 가난과 붕괴의 전형적 모습을 우리는 주인공 안드레아의 외할머니 맥의 풍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상반된 모습, 즉 신흥부르주아의 호화롭고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대학에서의 동료인 폰스라는 등장인물들의 집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의 중요한 소재들 중의 하나가 바로 몰락한 프티부르주아와 신흥부르주아의 대립적 양상에 대한 암묵적 서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인 내전의 주요 동기가 되었던 공화파와 국민파와의 갈등의 양상들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과거의 회상 기법을 통해 등장인물 후안과 로만 두 형제가 제각기 살길을 찾아 한사람은 공화파로 활동하였고, 또 한 사람은 국민파에서 활동하여 스페인 내전이 형제간의 사이도 갈라놓은 비극적인 이념대립의 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 소설은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주요 평가의 초점이었던, 작가와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천착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의 해석이나 주인공 안드레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 천착한 성장소설의 특징 외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의 대비적 요소와 대립적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체현된 스페인 내전 전·후의 스페인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 가정의 구성원들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스페인 현대문학, 카르멘 라포렛, 전후소설, 나다

❖ 참고 문헌

- 카르멘 라포렛, 『나다』, 김수진 옮김, 문예출판사, 2006.
뤼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 방법론』(박영신 외 옮김), 현상과인식, 1984.
서정철, 『인문학과 소설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2002.
정선옥, 「프랑코 시대의 스페인 여성문학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8권, 2007.9.
Basanta, Angel, *La novela española de nuestra época*, Madrid: Anaya, 1990.

- Blanco Aguinaga, Carlos, Rodríguez Puértolas, Julio, Zabala, Iris M.,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t. III, Madrid: Castalia, 1979.
- Buckley, Ramón, *Raíces tradicionales de la novela contemporánea en Española*, Ediciones, Península. Serie Universitaria: Barcelona, 1982.
- Carr, Raymond, Pablo Fusi, Juan 공저, 강석영(역) 『스페인 현대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1.
- Cerrada Carretero, Antonio, *La novela en el siglo XX*, Madrid: Playor, 1983.
- García Viño, Manuel, *La novela española de Posguerra*, Madrid: Publicaciones españolas, 1971.
- _____, *La novela española desde 1939*, Madrid, 1994.
- Garrido González, Elisa(Editora), *Historia de las mujeres en España*, Madrid: Editorial Síntesis, 1997.
- Gurrero, Cristina Ruiz, *Panorama de escritoras españolas*, t. II, Cadiz: Universidad, Servicio de Publicaciones, 1996.
- Junquera, N., "La memoria de un niño al que nunca le preguntaron", *El País*, 2006.11.4. 30. 40-41.
- Laforet, Carmen, *Nada*, Barcelona: Ediciones Destino, 1979.
- López Moreno, Cristina, *España contemporánea*, Madrid: Sociedad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2011.
- Montoliú, Pedro, *Madrid en la Posguerra. 1936-1946. Los años de la Represión*, Madrid: Editorial Sílex, 2006.
- Rodríguez Puertolas, *La literatura facista*, Madrid: Ediciones Akal, 1986.
- Sanz Villanueva, Santos, *Tendencias de la novela española*, Madrid: Edicusa, 1972.
- Sobejano, Gonzalo, *Lección de la novela Española entre 1940 y ayer*, Madrid: Marenostam, 2007.
- http://es.wikipedia.org/wiki/Literatura_esp%C3%B1ola_posterior_a_la_guerra_civil

❖ ABSTRACT

Comparative elements and conflicts
in the novel *Nada*, Carmen Laforet

Sun-ki, Song

This paper looks into the complexity of the comparative and conflictive elements portrayed on the novel *Nada*.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ions of the female characters, we can classify them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pro-Franco and anti-Franco system. Thus, for example, the character Ena is an active, intellectual and liberal woman capable to manipulate and control men who lives at her own free will. This active and liberal personality is clearly not the favored type of woman under Franco, which prefers a society where men are the dominant figures. Another female character, Gloria, places herself far from the Catholicism based morality during the Franco period as she is having an affair with her husband's brother. We also find examples of the opposite, that is, affinity with Franco ideals, such as Angustias' decision to become a member of the convent, in line with the motto "Spain, united and great, through Catholicism"; the example of Ena's mother, nurturing six sons and daughters, also resonates with Franco ideology of a woman's role in the Spanish society, being mostly a reproductive instrument.

One of the topics of this novel i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rewar petit bourgeoisie and the new postwar bourgeoisie. We can appreciat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lifes of Andrea's family and Pons' family. Andrea has friendly relationships with friends from the new bourgeoisie; however, these interactions are not genuine, but superficial. Because of that, we also conclude that this novel reflects the underlying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ocial strata. We also observe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republicans and nationalists in this society, through

the relationships between two brothers, Juan y Román. During the civil war, Juan collaborates with the national faction, while Román joins the republican faction. Consequently, they separate from each other due to their different ideologies. We will conclude that this novel also reflects on the idea that the Spanish civil war destroyed fraternity and separated families.

Keywords

Contemporary Spanish Literature, Carmen Laforet, Post civil war Novel, *Nada*

논문접수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6. 08

게재확정일: 2012. 06. 11